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4일 (음력 12월 19일) 목요일

‘혈세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로 협상 논란 지속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유자(이하 맥쿼리)와 재정지원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의 법인세를 지원키로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맥쿼리와 1구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했던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대안적 투자비보장방식(MCC)으로 변경했다.

당시 광주시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후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약 변경으로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법인세는 제외해

市 사업자 법인세 대신 납부 부담

변경 협약 후 지난해 32억원 추가

야 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켰다면서 “결국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의 법인세를 대신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변경협약 체결 이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를 소급 적용해 납부한 것도 논란이다.

지난 2018년 광주시는 맥쿼리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 264억54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의 MRG 방식을 적용하면 232억3600만원이지만, 협약 변경 후 32억1800만원이 증가했다.

사업자 측과 소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법인세를 광주시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도 자치단체가 법인세를 포함해 맥쿼리 측과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가세 10%를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km)은 대우건설건설사업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2003년 맥쿼리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8.07%로 증가시켜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이자율을 10~20%로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8억원을 챙겨갔으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지역사회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맥쿼리의 소송 제기로 광주시가 2심까지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한 뒤 변경된 협약을 체결했다.

서은홍 기자



기자간담회 연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남 청소년 32%, 고민 부모와 대화 안해

청소년 3841명 생활 실태조사 결과...절반 “결혼 필요 못느껴”

전남지역 청소년 30%정도가 부모와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명 중 1명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남도 22개 시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84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전남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32.3%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6.6%의 청소년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어머니와는 3.4%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52.1%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과반이 넘는 57.1%의 청소년이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후 89.1%의 청소년이 공동가사분담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묻는 말에 주중에는 약 7시간 26분, 주말에는 약 8시간 47분을 수면시간으로 할애했으며, 수면시간은 주중에는 상위 학교일수록 수면시간이 짧았고, 주말에는 중학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청소년 신체활동시간은 일주일 평균 2.9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평균 신체 활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생의 평균 신체 활동시간은 감소했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이하 청소년전화)는 전체 청소년 중 45%가 ‘한다’고 응답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1.4%가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위 학교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아졌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점수가 낮았고, 도시·농산어촌 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았으며 일반군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결과는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전제

자유한국당원주지역본부장은 22일 “집안이 망해갈 때 혼자살기 위해 가출해 버렸던 사람. 뒷방에 앉아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사람이 집안이 살아날까가 보이자마자 재야 들어와인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학교안 전 국무총리를 동시에 지적했다.

오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바 있으며 황전 총리는 최근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유력한 당원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오전 시장을 겨냥 ‘어려운 지방선거 외종에서 그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물고 한다’고 반격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